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 영상

2020 년 10 월 19 일

투표 하세요!

저는 투표했습니다! 여러분은 투표 하셨나요? 투표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구 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항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건국초기부터 선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성별 및 인종차별적인 것이었음을 우리의 짧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향한 첫 걸음은 1870년 수정 헌법 제 15 조가 통과되면서 시작되어 인종에 따라 주어지는 투표권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15 차 수정안에서 아프리카 계 미국인 남성만 투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곧 일부 주에서 다른 유권자 제한이 발효되며, 20 세기까지 흑인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Jim Crow 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별에 근거해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을 위헌으로 한 수정 헌법 제 19 조의 100 주년을 기념합니다. 이 여성투표권리운동은 1800 년대에 시작되었으며 Seneca Falls 컨퍼런스에 참여 하였던 분들 중에서 오직 한 여성만이 제 19 차 수정안이 비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평생이 넘게 걸린 투쟁이었습니다.

유색 인종 여성들이 함께 싸운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색 인종 여성에게는 선거권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1924년에 시민권을 부여 받았지만 시민권의 권리는 주정부에 의해 통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있는 주에서는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48 년 연방대법원은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여러가지 제한과 제약을 두고 있었지만 투표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수정헌법 제 24조에 의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 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투표에 대해 인두세가 자주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유색 인종과 빈곤 한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했습니다.

1965 년 연방 투표 권리 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소수 민족과 여성이 투표하지 못하도록하는 유권자 억압 방법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유색 인종 및 비영어권



사용자에게 투표 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 ID 법, 등록 제한 및 유권자 추방 등의 새로운 유권자 를 억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1971년에 군대 안에서도 "싸울 수 있는 나이" 라면 "투표 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다" 라는 26차 수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 특히 당시 베트남에서 싸우도록 징집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싸울 때 적어도 투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수정안 법안이 아니지만 라틴계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 하도록. "여러분의 투표는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모토 아래 1974 년에 투표하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라틴계 사람들이 투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록 교육 프로젝트 였습니다.

1970 년 미국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투표에 장애우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없어야 함을 보장했습니다. 모든 투표소는 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 년 선거에서 투표소의 검사에 의하면 2/3의 투표소가 그 중 적어도 출입 장애물이 한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우리 나라의 짧은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헌법 및 기타 변경 사항은 모든 사람 을 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색 인종, 빈곤층 및 과거에 수감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투표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려는 주가 여전히 있습니다.

연합 감리교 인으로서 우리는 수년에 걸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옹호 해 왔습니다. 2016 -2020 연합감리교회의 Book of Resolutions 을 검색해 보면 역사적으로 인종이나 빈곤으로 인해 과소 평가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투표에 "영어로만 투표해야하는 것" 등 "투표시 차별 금지" 에 대해 옹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에 보면 수감되었던 자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DC의 영주권자들 에게도 투표권을 허락 하자는 내용들이 포함하는 것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20 년 교단 총회를 위한 입법안을 읽어보지 못하였지만, 연합감리교회는 유권자 탄압을 방지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며, 우리 대부분이 존중 받지 못하고 투표자격을 얻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에 강제로 대답해야 했던 여성, 흑인, 유색 인종, 가난한 사람들이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서 간 노력한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다른 정부 (로마) 하에서 살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시민이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좋은 이웃이되는 한 가지 방법은 좋은 시민이되는 것이고 좋은 시민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싸워서 이룩한 권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우리 UMC의 모토인 "See All the People"을 계속 이루어 나가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저는 투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투표 하실 것이죠? Amen!


Sally Dyck